

5·18 45주년 기념 '전국 무등산무돌길 완주대회' 성료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제4회 전국무등산무돌길완주대회'가 지난 10일 무등산무돌길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와 전남대학교총동창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동구·북구, 담양군·화순군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광주·화순·담양 등 무등산 자락 51.8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완주(51.8km)와 하프, 시민 걷기(5.18km) 등 다양한 코스로 나눠 열린 이번 대회에는 1800여명의 참가자와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전국에서 온 참가자 중 142명이 51.8km구간을 8시간 안에 주파하고 400여명이 완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4년 연속 참가자 30명에게는 최다 참가상이 주어졌으며 최연소(13세), 최고령(79세), 외국인 참가자상 등이 수여됐다.

김인주 무등산무돌길협의회 상임의장은 "성공적인 대회 성과를 토대로 무돌길이 무등산의 전통문화는 물론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명품 길



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돌길은 '무등산 자락의 천년 문화를 한 바퀴 돌아 보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의미로 48개 마을과 마을을 잇는 500년 이상 된 옛길을 1910년 작성된 지도를 토

대로 발굴·복원한 무등산 둘레길이다. 광주역을 출발해 전남대, 각화저수지, 담양·화순, 광주천-푸른길을 지나 광주역으로 순환하는 16개 길로 구성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뽀빠이' 이상용 별세...어린이·군인의 친구 잠들다

1990년대 인기 MC로 활약한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사진)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는 "고인이 9일 낮 12시 45분께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졌다"며 "사인은 심정지"라고 밝혔다.

고인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농대 임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MBC '유쾌한 청백전'으로 방송계에 데뷔했다.

이듬해 KBS 어린이 프로그램 '모자 노래하자'에 출연하게 된 계기도 독특하다.

고인은 160cm의 작은 키에도 다부진 체격이었고, 방송에서 알통을 자랑하고 벽돌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며 '뽀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것은 KBS 라디오 '위문열차', MBC '우정의 무대' 등 군 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특히 고인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8년간 진행한 '우정의 무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심장병 환아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1980년대 '모자 노래하자'를 진행하던 당시 한 심장병을 앓던 아이가 촬영장으로 찾아왔고, 이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한국어린이보호회를 세우고 16년 동안 어린이 수백명의 심장병 수술을 도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5.5 문화상,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개교 117주년' 수피아여중·고 홈커밍데이 열려



올해 개교 117주년을 맞은 광주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가 지난 5월 10일 총동창회 주관의 '홈커밍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매년 5월 모교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졸업생과 재학생, 교직원 한자리에 모여 학교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동창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영 수피아 모임' 활성화, 기수별 참가자 확보, 선후배 간 소통 채널 구축 등에 힘써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었다.

동문 500여 명이 참석한 올해 행사는 자랑스러운 수

피아인상 시상, 근속 교사 표창, 장학금 전달, 수피아인 특별무대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자랑스런 수피아인상은 광주YWCA 합창 지휘자를 역임한 강양은(14회)씨와 장학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이선영(26회)씨가 수상했다.

국영영 수피아 총동창회장은 "졸업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어 기쁘다"며 "모교를 중심으로 선후배 간의 따뜻한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곡성군 삼기면 허재수 씨

산불피해 복구 성금 1000만원



곡성군 삼기면 허재수(사진)씨가 8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열매)에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8일 진행됐으며 허재수 기부자와 이현승 전남 사랑의열매 모금2팀 팀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허재수 기부자는 2023년 나눔리더 가입을 통해 곡성군의 나눔 문화를 이끌었으며 이번 영남지역 산불피해 특별모금을 통해 전남지역 개인 최고 금액 1000만 원을 전달해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앞장섰다.

허재수 기부자는 "산불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허준' '이산' 강렬한 감초 연기...배우 정명환 별세

사극 '허준', '이산' 등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정명환이 별세했다. 향년 65세.

유족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오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고인은 1960년생으로 안양예고를 졸업하고,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여명의 눈동



자' 등에 출연했고, 1991년 MBC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 '허준', '신돈', '이산' 등 여러 사극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합뉴스

김진경 국립목포대 교수,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아트앤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김진경(사진) 교수가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와한국전자거래학회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스마트미디어와 커머스 융합'을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교수의 논문 '시각디자인전공 탐색을



위한 무전공 신입생 지원모형 설계'는 무전공 신입생이 전공 적합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오동미네 육아일기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전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빠이 좋아	30 애니갤러리
11	10 TV쇼 진품명품(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5 키즈 펫 도감(재) 45 주니토니 이야기(재)	00 잘 먹고 잘 사는 법 플러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슈퍼트론 2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쇼케이스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55 2시 뉴스 외전	00 사피엔스 클럽(재)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이맘때(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셋!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좋은아침 스페셜
4	00 시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폭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도시락 스페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35 시사타지 따따부따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여왕의 집	05 친절한 전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공부와 놀부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우리 집 금슬이지(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셀링법사의 비밀(재)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30 MBC 뉴스 25 5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0 KBC-화양봉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달인 열전 1부 시장의 맛 어벤저스>	11:20 세계테마기행 <숨은 남미 찾기-다이내믹 에피소드>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14:30 클래스 e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불룩스 16:10 동동동 동동동 17:00 페파 피그 17:1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17:40 도래미 프렌즈 쇼츠 17:50 지인앤티 팅TV(재)	18:10 EBS 뉴스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9:20 고향민국 19:50 왔다! 내 손수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 아뢰(野話) 강남 -강남 제일 부자전(展)> 21:35 한국기행 <갯간 열리는 날 1부 슬기로운 섬진강 생활> 21:55 PD로그 22:45 EBS 다큐프라임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클래스 e(재) 24:20 지식채널e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2일 (음 4월 15일 辛巳)

<p>36년생 같은 매끄럽지만 내부에는 문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48년생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탄 없이 행해라. 60년생 절만 수용한다면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72년생 허황된 것을 피해야 손실을 최소화한다. 84년생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 주목하라. 96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33, 90</p>	<p>42년생 단 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54년생 함께하는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66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78년생 현저한 행운도 없지만 대고 없이 무난하다. 90년생 지난날의 부실함을 만회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02년생 마음에 동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1, 57</p>
<p>37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49년생 초심을 뒤흔들 만한 강력한 유혹 앞에 노출되라. 61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73년생 이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운이 따를 수 있느니라. 85년생 합리적 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가 따른다. 97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99</p>	<p>43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55년생 막연 하다면 위험에 처해지지 십삼이다. 67년생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도 범연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리라. 79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판하지 않는다. 91년생 호적수와의 만남이 불가피하다. 03년생 일상적인 구조나 속성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7, 74</p>
<p>38년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빨리 접는 것이 상책이다. 50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62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된다. 74년생 지금 즉시 실행하라. 86년생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만 동 세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98년생 평소 애원해 왔던 바가 이루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37, 92</p>	<p>44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를 수박에 없다. 56년생 차분하게 마음먹고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68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흥사를 비껴 갈 수 있다. 92년생 빠른 속도로 행운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04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28, 65</p>
<p>39년생 비했을 때 많이 채워지는 법임을 명심하라. 51년생 일장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목이 보인다. 63년생 현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실히 벗어나야만 한다. 75년생 실제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잘 하자. 87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99년생 추이를 보고 진퇴를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03, 80</p>	<p>45년생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57년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69년생 특별함을 도모하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81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노파심을 떨쳐 버려도 되느니라. 93년생 잠자고 있는 편이 낫다. 05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8, 59</p>
<p>40년생 고통을 왔던 일에 대한 회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52년생 이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64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 76년생 의견을 달리하는 이가 보일 것이니 상충하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88년생 새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다. 00년생 바뀔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6, 96</p>	<p>46년생 단독으로는 힘들 것이니 함께 행하라. 58년생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쫓대를 가져라. 70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82년생 소망이 이루어지려는 찰나에 놓여 있느니라. 94년생 분출구가 없다면 반드시 한계 범위에 이를 것이다. 06년생 행편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행운의 숫자 : 31, 67</p>
<p>41년생 뜻밖에 지출해야 할 곳이 생긴다. 53년생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65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77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89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01년생 간단 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20, 77</p>	<p>47년생 자기 확산에만 치우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59년생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71년생 중차대한 일하므로 세밀히 따져 봐야 한다. 83년생 학우고대해 오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니라. 95년생 결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니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07년생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17, 73</p>